

陸游 登臨詩의 공간 기호론적 분석*

김동진** · 김준연***

— 목 차 —

1. 서론
2. 중국 고대의 '등림' 전통
3. 육유 등림시의 지리공간
 - 1) 蜀 지역
 - 2) 閬·夔 지역
4. 등림시의 공간 기호론적 의미
 - 1) 중간시대적 공간
 - 2) 방향의 공간
 - 3) 양가감정의 공간
5.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육유의 등림시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그가 오른 건축물이 위치한 지리공간의 의미와 그 건축물이 지닌 기호론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시에서 활용한 이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육유가 자신이 처한 지리공간에 부여한 의미를 탐구했고, 그 공간적 의미가 어떠한 방식으로 회재불우와 우환의식, 은거와 국토 수복의 소망 등 주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등림시 주위의 공간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등림시란 공간 자체가 지닌 기호론적 의미를 해독하기 위해 중간시대, 방향, 양가감정 등의 핵심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이원적인 대립 개념 사이에

* 이 연구 성과는 2021년도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의 참여 학생·교수로서 작성한 것임.

** 고려대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 고려대 중어중문학과 교수(교신저자)

서 평생을 방황하고 양가감정을 소지했던 육유가 어떻게 등림지 특유의 중간지대적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사상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는지 검토하였다.

키워드: 기호론, 공간, 육유, 방황, 양가감정, 지리, 중간지대, 등림

1. 서론

중국 南宋 시기에 활동했던 시인 陸游는 다작으로 유명하여 현존하는 시만 9,300수를 넘는다.¹⁾ “고르지 않으면 소리가 난다”²⁾라는 말이 있듯이 문인이 훌륭한 글을 쓰거나 문장으로 이름을 떨치려면 곤궁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전통적 인식이다. 만 수에 가까운 시를 지어 ‘소리를 낼’만큼 육유도 ‘고르지 않은’ 일생을 살았다. 그 이유는 그가 평생을 북쪽의 영토를 빼앗은 女眞族의 金나라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講和派로부터 배척을 당해 오랜 시간 좌천과 전임을 반복하며 도성과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나그네의 신분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육유가 부임한 지역은 여러 차례 달라졌으나, 어느 지역인지를 막론하고 그가 꾸준히 고수했던 습관이 있었으니, 바로 亭臺樓閣과 탑 등의 높은 건축물 위에 오르는 것이었다. 이는 「水亭晚眺」 시에서 “백년 간 몇 번의 저녁을 난간에 기대어 보냈는가(百年幾夕倚闌干)?”라고 했던 것이나, 「雨中登安福寺塔」 시에서 “평생 동안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좋아했다(平生喜登高)”라고 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그 결과, 육유가 지은 시 중 등림을 소재로 한 것만 100수가 넘는다. 등림의 행위가 육유의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만하다. 따라서 육유의 등림시를 제대로 분석해야 육유 시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육유 등림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등림시의 주제와 사상, 그리고 표현수법에 주목했다. 본고에서는 이에 그치지

1) 錢仲聯, 『陸游全集校注』 vol.1,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2011, 2쪽.

2) 韓愈, 「送孟東野序」: 不平則鳴.

않고, 등림지라는 공간 자체가 육유의 등림시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공간 기호론적 관점에서 탐색할 것이다. 등림지의 기호 의미를 심층적으로 접근할 때 육유가 등림시에서 표출하고자 한 詩想에 대한 이해도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누각처럼 일정한 고도를 지닌 건축물을 가볍게 언급한 시까지 계산하면 그 수가 더 증가할 수 있겠으나, 제목만 살폈을 때 그 건축물들에 올랐던 일을 주요 소재로 다룬 것으로 판단되는 시는 103수에 달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 103수가 ‘등림’이라는 행위를 육유가 강하게 의식하고 지은 시라고 여기고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정대누각 외에 탑과 성 등이 더 있는데, 본고에서는 편의상 이들 건축물에 오른 시를 ‘등림시’로 통일하여 지칭할 것이다.

2. 중국 고대의 ‘등림’ 전통

중국의 고대 시가는 일반적으로 문학적 전통을 수용하는 가운데 시인의 개성적 면모를 발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전 시인들에게서 시상을 따오거나 그들의 표현 일부를 전고로 사용하면서 그것에 자신의 독창적인 표현을 일부 가미하여 시를 지었다는 것이다. 현대와는 달리 고대 시인들은 이와 같은 행위를 표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학적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편이라고 생각했다. 문학적 전통을 공유하는 지식인 집단에 귀속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자부심을 느꼈던 것이다. 유학자들이 성인의 도를 전승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생각했던 것처럼, 문인들 역시 이러한 문학적 전통을 계승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육유의 등림시 역시 전통과 개성의 융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의 등림시를 이해하는 선행 작업으로 먼저 중국 고대의 ‘등림’ 전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상적인 행위라 할 수 있는 ‘등림’에 철학적 의미를 강하게 부여한 것은 유가의 사상이 맹자였다고 여겨진다. 그는 “공자는 동산에 올라 노나라를 작다고 여겼고,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다고 여겼다”³⁾고 했다. 성인으로 존송되는 공자의 영향력으로 인해 문인들 사이에서 ‘등림’은 천하를 내려다보거나 포용하는 포부를 품는 일종의 통과 의례, 그리고 올바른 심성을 도야하기 위한 행위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등림’의 개념이 차츰 확장되어 동산이나 태산과 같은 특정의 자연물 외에 높은 곳이라면 어디든 오르는 것 그 자체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높은 곳에 올라 시를 지을 수 있으면, 대부가 될 수 있다”⁴⁾거나 “공자가 ‘군자는 높은 곳에 오르면 반드시 시를 짓는다’고 했다”⁵⁾는 기록이 이를 증명한다. 이에 더하여 높은 곳에 오르는 데 그치지 않고 시를 지어 감회를 읊는 것이 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⁶⁾

‘등림’의 전통은 문인들의 잦은 이동을 통해 지속되고 확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동의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을 띤 유람, 과거시험을 위한 行卷, 전란에 의한 피난, 그리고 타지방으로의 좌천 등이 있었다. 이로써 중국의 문인들은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면 자연스럽게 그곳의 명승지를 탐방하였다. 이러한 명승지에는 산이나 누각 등이 포함되었고, 이는 등림시의 창작으로 이어졌다.

문학적 전통으로서 누각 등반을 소재로 삼는 등림시 창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작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東漢 시대의 王粲이 지은 「登樓賦」다. 왕찬은 전란을 피해 長安을 떠나 荊州로 가서 劉表에 의탁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는 劉表의 중용을 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10여 년간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었다. 타지에서 오래 생활한 탓에 고향이 그리워진 왕찬은 麥城의 성루에 올라 부를 지었는데, 그것이 「登樓賦」다. 이 부가 후인들에게 등림시의 原型이 된

3) 『孟子·盡心上』: 孔子登東山而小魯, 登泰山而小天下.

4) 『漢書·藝文志』: 登高能賦, 可以爲大夫.

5) 『韓詩外傳』: 孔子曰, 君子登高必賦.

6) 裴登峰, 「古典詩詞中的登高主題及其創作緣由」, 『西北民族學院學報』, 4期, 1996, 94쪽.

이유는 이것이 누각 등반을 소재로 鄉愁, 憂患意識, 懷才不遇의 감정을 최초로 노래한 문학작품이기 때문이다.⁷⁾ 후대 등림시에서 사용되는 표현의 정형이 된 구절들을 「登樓賦」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 ① 登茲樓以四望兮, 이 누각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고,
聊暇日以銷憂. 잠시 한가로운 날에 근심을 해소하네.
- ② 憑軒檻以遙望兮. 난간에 기대어 멀리 바라보네
- ③ 雖信美而非吾土兮, 비록 정말로 아름다우나 나의 고향이 아니니,
曾何足以少留. 어찌 조금이라도 머무를 가치가 있겠는가?
- ④ 悲舊鄉之壅隔兮, 고향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음을 슬퍼하고,
涕橫墜而弗禁. 눈물 줄줄 흘러 멈출 수가 없네.
- ⑤ 白日忽其將匿. 태양은 금방 종적을 감추네.
- ⑥ 風蕭瑟而並興兮. 소슬한 바람 동시에 불기 시작하네.
- ⑦ 惟日月之逾邁兮, 세월은 흘러가는데,
俟河清其未極. 황하가 맑아지길 기다리는데 기약이 없네.
冀王道之一平兮, 바라는 바는 왕도의 통치가 평화로워져서
假高衢而騁力. 높은 직위에서 재능을 펼치는 것이라네

①은 누각에 올라서 확 트인 주변 광경을 봄으로써 마음속에 쌓여 있는 근심을 잠시 달랜다는 시상을 표현할 때 시인들이 자주 참고하는 구절이다. 후대의 등림시에서 ‘倚欄’과 ‘憑軒’처럼 ‘난간에 기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시어를 빈번히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원형을 ②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③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전고로 활용된다. 이 전고를 사용하여 시인들은 고향이 아닌 장소는 낯설 뿐이고 귀속감을 주지 못한다는 인식을

7) 趙松元, 「王粲登樓」與登樓懷鄉的傳統, 『中國韻文學刊』, 1期, 1996, 82쪽.

드러냈다. ④ 또한 고향 쪽을 조망해도 고향이 보이지 않고, 귀향하고 싶으나 발이 묶여 그럴 수 없는 처지를 슬퍼하는 내용을 서술할 때 시인들이 자주 활용하는 대상이다. 그리고 후대 등림시의 상당수가 시의 시점을 황혼과 가을로 설정하여 쓸쓸하고 외로우며, 침울한 意境을 조성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주로 ⑤와 ⑥에서 비롯되었다. ⑦은 憂國의 감정과 포부를 펼칠 수 없는 울분을 담고 있는데, 이는 후인들의 등림시에서도 쉽게 읽어낼 수 있는 주제다. 이와 같이 향수와 회재불우 등은 중국 역대 수많은 遷客들이 공유했던 전형적인 정서이므로, 후대 문인들의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이 주제를 처음으로 누각에 등립하는 행위와 결부시켜 그려냈기 때문에, 「登樓賦」는 등림시가 추앙하는 전통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등림의 사회문화적 전통으로 돌아오면, 園林 문화가 크게 발달하면서 문인들이 개인 주택에 등림지를 갖게 된 것이 등림시의 공간적 제약을 크게 해소시킨 배경으로 평가된다. 문인들이 타지에 가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연 환경을 모방한 원림을 자신의 집에 만들고 그 속에 누각과 같은 건축물을 지었던 것이다. 이들은 평소에도 개인 소유의 누각에 올라 인공적으로 조성한 원림을 감상하며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감흥을 시로 담아낼 수 있었다. 또한 원림과 누대는 문인들의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되었다. 그들은 개인의 원림에서 정치적 혹은 사교적 모임을 자주 가졌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등림시도 적잖이 창작되었다.⁸⁾

오늘날까지도 중국에 전해지는 전통문화 가운데 하나인 重陽節과 登高의 풍습은 ‘등림시’ 창작을 고취한 주요 배경이었다. 음력 9월 9일에 중국인들은 국화를 감상하고, 머리에 茱萸를 꽂은 채 가족, 친지와 함께 높은 곳에 오른다.⁹⁾ 중양절의 등림지에 산과 누각이 포함되었던 것은 물론이다. 현전하는 등림시 가운데 시간적 배경이 중양절인 작품이 꽤 많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8) 최은정, 「唐代 李白·杜甫 登望詩 比較 研究」,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2020, 58쪽.

9) 瞿明剛, 「試論中國文學的登高主題」, 『江海學刊』, 2期, 1994, 172쪽.

3. 육유 등림시의 지리공간

필자의 통계에 따르면, 육유가 머물렀던 지역 중에서 등림시를 비교적 많이 남긴 곳으로는 成都(27수), 越州의 山陰(20수), 嚴州(15수), 撫州(10수), 嘉州(8수), 夔州(5수) 등이 있다.¹⁰⁾ 육유가 등림시를 다작한 이들 지역을 蜀 지역과 閩·贛 지역으로 나누어 지리공간적 특성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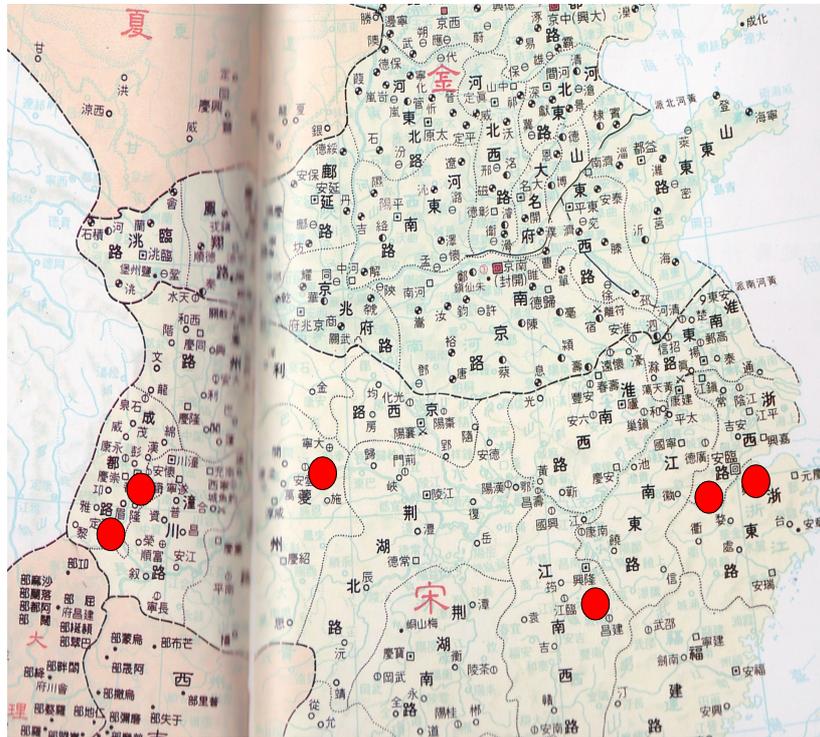


그림 11) 1)

10) 등림시를 상대적으로 많이 창작했던 지역의 위치는 그림 1에 표시하였다.

11) 程光裕, 『中國歷史地圖』,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社, 1980, 61-62쪽.

3.1. 蜀 지역

육유는 乾道 元年(1165)에 臺諫과 결탁해 張浚의 용병을 역설했다는 죄목으로 파직되었다. 乾道 6년(1170)에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아 夔州通判에 부임한 이후 10년간 蜀 지방에서 생활했다.¹²⁾ 기주는 오늘날 重慶市 奉節縣에 해당하며, 지리적으로는 長江三峽 중 하나인 瞿塘峽에 인접해 있다. 『太平寰宇記』에 따르면, “구당협은 기주에서 동쪽으로 1리 밖에 있고, 옛날의 서릉협이다. 절벽이 천 길이나 이어져 있고, 내달리는 강물은 번개처럼 빨라 뱃사람들이 무서워했다”¹³⁾고 한다. 기주 지역은 예로부터 험준한 지세로 유명했고, 외지인들이 현지의 혹열과 습한 기후로 인해 풍토병을 앓는 경우가 허다했다. 육유의 등림시에 나타난 기주의 지리공간적 의미를 살펴보자. 먼저 「登江樓」시를 보기로 한다.

己過瞿唐更少留, 이미 구당협을 지났으나 조금 더 머무르려,
小船聊系古夔州. 작은 배를 잠시 옛 기주에 묶어 정박하네.
簿書未破三年夢, 공문서는 삼년의 꿈을 깨우지 않았기에,
杖履先尋百尺樓. 지팡이와 신을 챙겨 먼저 백 길의 누각을 방문하네.
日暮雪雲迷峽口, 날이 저물자 눈구름은 협곡 어귀에 자욱하고,
歲窮烽火照關頭. 해가 저물자 따비발 태우는 불은 관문을 비추네.
野人不解微官縛, 농민들은 미관말직의 속박을 이해하지 못하니,
尊酒應來此散愁. 술잔을 들고 마땅히 이곳에 와서 근심을 풀어야지.

육유는 험준한 구당협을 무사히 지나 기주에 도착했다. 기주라는 곳은 열악한 환경을 대표하는 지리공간이었기에 이곳에서 사소한 공문서나 처리하는 말직의 생활은 지난 3년간의 무직 상태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었다. 육유는 답답한 마음과 수심을 달래고자 노쇠한 몸으로 지팡이를 짚고 서둘러 누각에 오른다. 누각에서 눈에 드는 경물은 지는 해와 눈구름, 구당협, 따비발 태우는

12) 주기평, 『육유시가연구』, 서울: 역락, 2010, 55쪽.

13) 『太平寰宇記』: 瞿唐峽, 在州東一里, 古西陵峽也. 連崖千丈, 奔流電激, 舟人爲之恐懼.

불, 그리고 농민들이었다. 頸聯을 통해 옥유가 누각에 오른 시점이 연말의 해 질 녘이란 것을 알 수 있는데, 곧 나이를 더 먹게 된다는 현실과 겨울의 추위가 옥유의 근심을 배가시켰을 것이 틀림없다. 날이 저물어 협곡의 험한 지형이 보이지 않을 터인데, 거기에 눈구름까지 피어올라 협곡의 형세가 더욱 희미해졌다. 이는 불확실하거나 순탄하지 않은 옥유의 앞날과 그에 대한 尾聯의 수심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기주 통판의 직무에 농업 감독도 포함되었기에 자연스럽게 火田에서 피어오르는 불이 옥유의 눈에 들었을 터이다. 옥유는 이 따비밭에 불을 피우는 현지 농민들의 시선을 빌려 자의식을 내비친다. 즉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옥유가 왜 이곳을 낯설어 하며 누각에 올라 술을 마시는지 농민들은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이처럼 옥유에게 기주는 어려운 가계 때문에 미미한 관직에 속박되어 마지못해 왔던 지리공간이었고, 그래서 강가의 누각에 올라 자신의 무력감, 그리고 타지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외로움을 진솔하게 토로하였다.

기주에서 지은 등림시를 한 수 더 보기로 한다. 「九月三十日登城門東望凄然有感」이라는 시를 살펴보자.

減盡腰圍白盡頭, 허리둘레가 끝까지 줄고 머리카락은 다 세었는데,
經年作客向夔州. 해가 지나도록 기주에서 나그네 생활이로구나.
流離去國歸無日, 고향을 떠나 유랑하며 돌아갈 날 기약 없는데,
瘴癘侵人病過秋. 瘴氣가 사람에게 침입하니 병든 몸으로 가을을 지내네.
菊蕊殘時初把酒, 국화가 질 때 비로소 술잔을 들고,
雁行橫處更登樓. 기러기가 진을 치고 날아갈 때 다시 누각에 오르네.
蜀江朝暮東南注, 촉강은 밤낮으로 동남쪽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我獨胡爲淹此留. 나는 어째서 홀로 이곳에 머물고 있는가?

이 시의 전반부는 기주의 혹독한 환경과 고향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발생하는 옥유의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감을 토로했다. 그곳에서 일년간 생활할 동안 옥유는 풍토병에 걸려서 허리둘레가 현저히 줄고 머리가 하얗게 세었다. ‘瘴氣’는 기주라는 지리공간의 의미를 압축해 보여주는 시어다. 풍토병이 주

는 고통은 마치 기주가 자신을 배척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옥유에게 와 닿았을 것이다. 아픈 때일수록 집이 그리워지기 마련인데 귀향의 기약이 없다는 현실에 괴로워하던 옥유는 가을이 끝나갈 무렵에야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후반부에서는 고통을 잠시 잊게 해줄 술을 챙겨 성루에 올라 바라본 경물을 묘사하였다. 누각 주변으로 지는 국화와 기러기 떼, 그리고 蜀江이 보였다. 옥유는 올해 지더라도 내년엔 다시 만개할 국화를 보며 인간 삶의 덧없음을 깊이 생각했을 것이다. 후반부에서 기주의 지리공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시어는 ‘기러기’와 ‘촉강’이다. 기러기는 남쪽에 왔다가 기주 부근에서 북쪽으로 되돌아가고, 촉강은 기주에서 협곡에 접어들어 고향 쪽으로 내달린다. 옥유는 성문에 올라 이러한 지리공간적 특징을 눈으로 확인하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에 더욱 처연해졌을 것이다.

乾道 9년(1173)에 옥유는 드디어 기주 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새 부임지는 그의 고향에서 더욱 먼 변방의 嘉州였다. 嘉州通判으로 부임한 옥유는 기주에서 느꼈던 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이에 가주에서도 자주 누각에 올라 시를 지었다. 가주의 지리공간적 의미를 살필 수 있는 시로 먼저 「望雲樓晚興」라는 작품을 보자.

小閣東南獨詠詩, 작은 누각 동남쪽에서 홀로 시를 읊는데,
 此生終與世差池. 이번 생은 끝내 세상과 어긋나네.
 夕陽明處蒼煙合, 석양 밝은 곳에 푸른 안개구름 모이고,
 棲燕歸時畫角悲. 귀소 제비 돌아갈 때 뿔피리가 슬피 우네.
 人與江山均是夢, 인간과 강산은 모두 꿈이니,
 心非風月尙誰知. 풍월을 즐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알리.
 舊交幾歲音塵隔, 옛 벗들은 몇 년간 소식이 끊기니,
 三撫闌幹有所思. 난간을 세 번 어루만지며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네.

가주는 지리적으로 남송의 서남쪽에 해당하는 곳에 있었다. 변방이라 ‘뿔피리’ 소리가 들리지만 북쪽의 금나라 대신 남쪽의 大理와 맞닿은 곳이다. 그래서 이 시에서 ‘동남쪽’을 언급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띤다. 옥유의 고향인 산

음이 동남쪽에 있을 뿐만 아니라 ‘東南之美’¹⁴⁾라는 성어가 있듯이 동남쪽은 출중한 인재를 가리키기도 한다. 따라서 서남쪽 거주에서 미관말직으로 지낸다는 것은 육유에게 ‘懷才不遇’의 심정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심정은 둘째 구 ‘세상과 어긋나는 인생’이라는 표현에서 직설적으로 드러나며, 셋째 구 ‘석양’과 ‘안개구름’에서 재차 은유적으로 형상화된다. 거주가 설령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라 한들 ‘일장춘몽’의 허무함에 빠져드는 육유에게 거주가 그러한 지리공간으로 다가올 리 만무하다. 岳陽樓에 오른 杜甫가 그랬듯 육유는 망운루에서 소식이 끊긴 옛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고독과 슬픔에 잠긴다.

이어서 「重九會飲萬景樓」라는 시를 논의해보자.

粲粲黃花手自持, 화려하고 선명한 노란 꽃을 손으로 직접 들고,
登高聊答此佳時. 높은 곳에 올라 이 좋은 때에 잠시 응하네.
織雲不作看山崇, 가벼운 구름은 산을 바라볼 빌미를 주지 않고,
鬪酒聊寬去國思. 음주를 겨루어 고향을 떠난 그리움을 잠시 달래네.
落日樓臺頽徙倚, 해가 지니 누대를 빈번히 옮겨 의지하고,
西風鼓笛倍淒悲. 서풍과 북 피리 소리에 처량함과 슬픔이 배가 되네.
彭城戲馬平生意, 彭城의 戲馬臺 평생의 소원인데,¹⁵⁾
強爲巴歌一解頤. 억지로 바 지방 노래를 부르며 한번 활짝 웃네.

이 시는 중앙절인 9월 9일에 萬景樓에 올라 지은 것이다. 만경루는 금나라

- 14) 潘尼, 「贈陸機出爲吳王郎中令」: 東南之美, 曩惟延州, 顯允陸生, 於今鮮儔. 이 시에서 潘尼는 낙양을 기준으로 동남쪽 지역인 吳나라 출신의 陸機에 대해 근래에 비견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출중한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육유가 누각에 설 때 굳이 동남쪽을 택했던 것은 潘尼의 시를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본인이 陸機처럼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潘尼처럼 자신을 제대로 평가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주에서 한직을 지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울분을 토로한 것이다.
- 15) 彭城戲馬: 『南齊書禮志』에 따르면, “宋나라 武帝인 劉裕는 [왕조를 세우기 전] 9월 9일에 말을 타고 項羽의 戲馬臺에 올랐다고 한다. [즉위 후에는 9월 9일을 말 타고 화살을 쏘며, 군대를 검열하는 날로 정했는데] 지금까지 계승되어, 오래된 준칙으로 삼고 있다 (宋武爲宋公, 在彭城, 九日出項羽戲馬台. 至今相承, 以爲舊准)”고 한다.

군대의 공격을 잘 막아낸 呂由誠이 세운 것으로, 가주의 명승지로 알려진 곳이다.¹⁶⁾ 옥유는 중앙절을 맞아 만경루에 오르긴 하였으나, 제2구와 제4구에 두 차례 쓰인 ‘잠시(聊)’와 제8구에 쓰인 ‘억지로(強)’는 즐겁게 명절을 보낼 기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만경루라는 이름 그대로 ‘온갖 경물(萬景)’이 자태를 뽐내는 모습을 감상하기에 적당한 곳이지만 시인의 심사는 ‘처량함’과 ‘슬픔’만 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 가주의 지리공간적 의미는 제4구에 보이는 ‘고향’과 제7구에 보이는 ‘彭城의 戲馬臺’와의 대비를 통해 잘 드러난다. 가주는 제6구의 ‘서풍과 북 피리 소리’가 묘사한 바와 같이 고향 산음과 멀리 떨어진 이역만리 서쪽 변방이었다. 또한 옥유는 온갖 경물을 감상하는 만경루보다 劉裕가 중앙절에 군대를 검열했던 장소인 희마대에 오르고 싶었다. 다시 말해서 오랑캐를 몰아내는 북벌에 나서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던 것이다. 그런 옥유에게 가주는 ‘억지 웃음’을 지어야 했던 곳이었다.

淳熙 元年(1174)에 옥유는 가주통판에서 蜀州通判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임지인 성도는 가주에서 그리 멀지 않은 변방이었기에 이곳의 지리공간적 의미 또한 가주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다. 「秋晚登城北門」이라는 시를 살펴보자.

幅巾藜杖北城頭, 두건을 쓰고 명아주 지팡이를 짚고 북쪽 성벽에 오르니,
捲地西風滿眼愁. 땅을 휘감아 부는 서풍에 눈에는 수심이 가득하네.
一點烽傳散關信, 한 점의 봉화가 大散關의 소식을 전하고,
兩行雁帶杜陵秋. 두 줄의 기러기가 杜陵의 가을을 가져왔네.
山河興廢供搔首, 산하의 흥망성쇠는 머리 긁적이게 하고,
身世安危入倚樓. 신세의 안위는 들어가 누각에 기대게 하네.
橫梁賦詩非復昔, 더 이상 과거처럼 창을 비껴들고 시를 읊을 수 없으나,
夢魂猶繞古梁州. 꿈속에서 영혼은 여전히 옛 梁州를 배회하네.

16) 王象之, 『輿地紀勝』: 가정부의 만경루는 사씨의 안락원 위에 있고, 선화 연간에 태수인 여유성이 지은 것이다. 누각 위에서는 넓고 멀리 보이는데, 온갖 도읍들과 변경지역,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모두 손아귀 안에 있다.(嘉定府萬景樓, 在史氏安樂園之上, 宣和太守呂由誠作. 所望闊遠, 諸邑邊塞, 指顧目覽, 盡在掌握.)

이 시는 육유가 가을에 성도의 북쪽 성문에 오른 뒤 지은 시다. 성문에 오름으로써 육유의 視點이 상승하고 그 결과 육유의 시각에서 본 성도의 지리 공간적 의미가 확연히 드러난다. 성 북쪽 성문은 蜀 지역에 봉해진 秦 惠文王의 아들 攄와 관련되어 있다.¹⁷⁾ 촉 땅에서 비명횡사하고도 억울함을 갚지 못한 雲의 행동은 북벌에 반대한 송나라 講和派를 연상시킨다. 시인의 시선은 이어서 大散關, 杜陵, 梁州로 차례차례 향한다. 이들 지명은 모두 삼국시대 촉의 諸葛亮을 암시한다. 제갈량은 양주에 북벌 기지를 마련하고 두릉으로 진격하려 했으나 대산관에서 郝昭가 이끄는 魏나라 군대에 저지되었다. 이 역시 강화과의 반대, 그리고 본인의 좌천으로 인해 북벌의 뜻을 이룰 방도가 없는 육유의 처지와 일맥상통한다.

3.2. 閩·贛 지역

淳熙 5년(1178)에 육유는 福州로 부임함으로써 10년간의 촉 지역 생활을 마감하고, 이듬해에 提舉江南西路常平茶鹽公事를 맡아 閩 지역에 속하는 撫州로 옮겼다.¹⁸⁾ 험준하고 혹독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고, 변방이라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촉 지방과 이별한 것이다. 그러나 육유에게는 무주 역시 희망이나 즐거움을 안겨주기 어려운 지리공간이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일례로 「秋晚登擬峴望祥符觀」이라는 시를 들 수 있다.

放翁局促留江干, 나 방옹은 속박되어 강가에 머무르며,

17) 『華陽國志』에 따르면, B.C. 301년 秦 惠文王의 아들인 攄가 昭襄王의 모후의 모함에 죽었다. 3년 뒤 雲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알게 된 소양왕은 雲의 유해를 수도 咸陽으로 옮기려 했다. 그러나 가뭄과 폭우가 이어져, 雲의 영구가 성 북문에 이르자 물러진 땅에 빠졌다. 이에 촉의 백성들은 성 북문을 함양문으로 바꿔 부르고 부근에 雲의 사당을 세웠다. 雲의 봉지였던 蜀은 그로부터 10여 년 뒤에 제후국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太守가 다스리는 곳으로 격하되었다.

18) 주기평, 앞의 책, 56쪽.

愛此樓前煙水寬. 이 누각 앞의 넓고 안개 자욱한 강물을 아끼네.
 雨昏回望殿突兀. 비 내려 어둑할 때 뒤돌아보니 道觀이 우뚝 솟아있고,
 秋晚剩覺山蒼寒. 가을 저녁이라 더더욱 산이 푸르고 차게 느껴지네.
 中原未復淚橫臆, 중원을 아직 수복하지 못하여 눈물이 가슴 적시고,
 故里欲歸身屬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나 몸이 관직에 묶여 있네.
 雲外飛仙故不遠, 구름 밖 나는 신선 진실로 멀지 않으니,
 喚渠小爲駐青鸞. 그를 불러 잠시 靑鸞을 멈추라고 하네.

이 시는 옥유가 무주에 있는 ‘擬峴臺’라는 누대에 올라 지은 시다. 수련 대 구만을 본다면 옥유가 강가에 긴 안개가 만들어낸 몽롱하고 신비스러운 분위기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련의 묘사에서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된다. 비로 인해 어두운 하늘, 가을날의 저녁이란 시점, 그리고 평소보다 더욱 색이 짙고 촉촉 느껴지는 산은 모두 암울하고 싸늘한 부정적 환경을 형성한다. 게다가 옥유는 이러한 경물 묘사를 통한 간접적인 표현 외에도 본인이 무주에 부여한 지리공간적 의미를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제1구에서 ‘局促’이란 시어를 통해 자신이 타지에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타냈고, 경련에서는 북방을 수복하지 못하여 눈물이 나며, 미천한 관직을 통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서술하여 우국과 향수의 감정을 강하게 표출했다. 그리고 미련에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신선을 따라 속세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밝혔다. 이처럼 무주 역시 옥유에게 있어서 그를 업매고, 나라에 대한 걱정과 고향을 향한 그리움으로 심적 고통을 주는 지리공간이었다.

淳熙 13년(1186)에 옥유는 그의 고향 산음과 함께 贛 지역에 속하는 嚴州의 知州로 임명되었다. 엄주가 고향에서 가까운 지역이라서 그런지 이곳에서 지은 등림시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정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옥유에게 엄주는 어떤 지리공간적 의미가 있는 곳이었는지 살펴보자. 「登紫翠樓」라는 시를 예로 든다.

水落溪聲壯, 수위가 낮아지니 시내 소리 웅장하고,

天寒山色奇. 하늘은 차며 산의 광경은 기이하네.
 殘雲宿虛閣. 덜 걷힌 구름 빈 누각에 머무르고,
 馴鷺下清池. 온순한 백로 맑은 연못에 내려앉네.
 簿領消豪氣. 공문서는 호탕한 기세를 없애고,
 功名負聖時. 공명은 성군의 치세를 저버리네.
 憑高不勝歎. 높은 누대에 기대니 탄식을 금치 못하고,
 神武迫歸期. 신무문은 돌아갈 날을 재촉하네.

紫翠樓는 엄주의 치소(지금의 浙江省 建德市)에 있던 누각이다. 자취루에 올라 바라보는 엄주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사방에 크고 작은 산들이 우뚝하고 성내를 新安江이 가로지르며 운치를 더한다. 오락가락하던 구름이 자취루를 휘감고 그 앞 연못을 백로가 내려앉은 모습이 더없이 푸근하다. 그러나 육유에게 엄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 덜어줄 뿐 오랑캐를 몰아내는 공을 세우고자 하는 그의 꿈과는 달리 날마다 자잘한 공문서와 씨름해야 하는 곳이었다. 마지막 연에 나타난 ‘탄식’은 엄주의 지리공간적 의미를 나타낸다. 자취루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며 육유에게 떠오른 생각은 ‘神武掛冠’이었다. 즉 남조 梁나라 陶弘景이 官途에 회의감을 느끼고 의관을 神武門에 걸어 놓고 사직했던 것처럼, 육유 역시 미관말직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결국 ‘迫歸期’라는 시어가 나타내듯이 엄주는 육유에게 있어서 벼슬길에서의 재기와 출세에 대해 체념하고 귀향의 뜻을 품게 만든 곳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길었던 타지에서의 생활 동안 육유는 한결같이 나라를 걱정하며 복벌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그가 오른 누각이 위치한 지역들의 지리적 특징은 비록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그가 누각 위에서 본 광경 역시 美景와 衰景 등의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들은 모두 육유에게 고향을 떠올리고 복벌에 나서지 못하는 비분강개를 속으로 달래는 공간으로 작용했다. 이 지역들을 표류하던 육유는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은 그에게 어떤 지리공간적 의미를 띠었는지 이곳에서의 등림시를 통해 알아보자. 「春晴登小臺」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不管筇枝破綠苔, 대나무 지팡이가 푸른 이끼를 찢는 것을 개의치 않고,
 閑穿萬竹上荒臺. 한가로이 수많은 대나무를 지나 인적 드문 누대에 오르네.
 幽花經雨自開落, 그윽한 꽃은 비를 거쳐 스스로 피고 지며,
 啼鳥喜晴時去來. 우는 새들은 날이 갠 것을 기뻐하며 자주 오가네.
 河岸家家裝彩舫, 강가 집집에서는 채색한 배를 장만하였고,
 兒曹處處唱青梅. 아이들은 곳곳에서 푸른 매실을 노래하네.
 誰知老子癡頑甚, 이 노인네 심히 어리석고 완고하다는 것을 누가 알까,
 看改新元十一回. 연호가 바뀌는 것을 11번이나 보았네.

옥유는 淳熙 16년(1189) 禮部郎中의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인 산음에서 은거했다.¹⁹⁾ 이 시는 비가 그치고 날이 갠 어느 봄날 누대에 올라 느낀 소회를 담은 것이다. 비를 맞은 꽃은 더 싱싱하게 피었다 지고 움츠렸던 새는 날이 개자 더 힘차게 날아다닌다. 사람들의 손길도 분주해져 집집마다 배를 정비하는가 하면 아이들은 매실을 노래하느라 떠들썩하다. 이렇게 생기 넘치는 봄과 달리 노쇠한 옥유는 시절에 어울리지 않음을 느낀다. 고향이 그에게 상기시켜 주는 한 가지는 자신이 ‘어리석고 완고하다(癡頑)’는 것뿐이다. 마지막 구에 쓰인 馮道の 전고에 그의 심사가 담겨 있다.²⁰⁾ 그는 풍도처럼 연호가 열한 번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으나 줄곧 재상을 지낸 풍도와 달리 타향에서 미관말직을 전전하다 고향으로 돌아온 노인네에 불과했던 것이다. 필생의 꿈을 이루지 못한 옥유에게는 고향마저도 정겨운 의미를 지닌 지리공간이 아니었던 셈이다.

4. 등림지의 공간 기호론적 의미

지금까지 옥유가 동반한 등림지가 위치한 지리 공간에 초점을 맞추어 그

19) 이기훈, 「陸游 만년 變節에 관한 小考」, 『인문사회과학연구』 27집, 2019, 89쪽.

20) 풍도는 後唐부터 後周까지 10명의 임금을 모셔 ‘十朝元老’라는 별명을 얻었다. 중간에 요나라 태종까지 모신 것을 더하면 연호가 11번 바뀐 셈이다.

공간적 특징이 옥유의 심사와 감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현해냈는지 분석하였다. 하지만 1장에서 거론했듯이 옥유는 일생 동안 수많은 밤을 누대 위에서 보냈고, 지역에 상관없이 등림의 습관을 고수할 정도로, 등림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등림지라는 공간 자체가 옥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의 등림시의 시상 및 내용, 그리고 중심사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등림지의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등림지 자체의 공간 기호론적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²¹⁾ 옥유가 등림했던 건축물로는 탑, 누각, 누대, 성루, 정자 등이 있는데, 이 등림지들은 구조적 차이와 상관없이 그의 시 속에서 몇 가지 공간 기호론적 의미를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그것을 ‘중간지대’, ‘방향’, ‘양가감정’으로 나누어 논의할 것이다.

4.1. 중간지대적 공간

등림의 과정은 오르고 내려가는 절차 외에도 등림지 위에서 머무르는 중간 단계가 있다. 게다가 등림지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이어주는 중간지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은 등림지에 ‘중간지대’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옥유는 그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처지와 감정, 그리고 사상을 ‘중간지대’란 개념과 결합시켜 등림지의 공간 기호론적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그 구체적인 양상을 「登太平塔」이라는 시를 통해 검토해보자.

我從平地來, 나는 평지에서 와서
忽寄百尺巔. 어느덧 백 척 정상에 몸을 의탁하네.
眼力與脚力, 시력과 각력은

21) 공간 기호론은 사물과 그것의 공간적 맥락 간의 관계가 갖는 의미를 탐구하는 기술적 과정이다. 즉 공간이 지닌 의미는 일종의 기호로서, 시에서 출현하는 詩語나 이미지, 경물 등의 요소와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바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등림지’라는 공간이 상징하는 기호론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初不減少年. 당초 젊은 시절에 비해 줄지 않았네.
 漸高山愈出, 점점 높이 오르니 산은 더욱 솟아오르고,
 杳杳浮雲煙. 유유히 안개구름 떠다니네.
 舉手捫參旗, 손을 들어 參旗²²⁾ 자리를 어루만지고,
 日月磨蠓旋. 해와 달은 맷돌 위의 개미처럼 도네.²³⁾
 天風忽吹衣, 하늘 바람 갑자기 옷에 불어 와,
 便欲從此仙. 이참에 지금부터 신선이 되고 싶네.
 且復下梯去, 아쉬운 대로 다시 계단을 내려가,
 著書未終篇. 끝내지 못한 시편을 저술하네.

이 시는 淳熙 4년(1177) 축 지역의 邳州에서 지은 것으로 태평탑에 오른 소회를 밝혔다.²⁴⁾ 제5구에서 “점점 높이 오르니 산은 더욱 솟아오르고”라 한 것과 제7구에서 “손을 들어 參旗 자리를 어루만진다”고 한 것은 각각 당나라王之涣과 李白의 시구를 연상하게 한다.²⁵⁾ 또한 제8구에서는 해와 달조차 하늘 앞에서는 개미 같다는 전고를 인용하여 『莊子』의 「逍遙遊」처럼 거대하게 눈앞에 펼쳐진 웅장하고 위대한 자연풍광을 묘사하였다. 이처럼 비범하고 황홀한 광경은 仙境이나 다름없어서, 列子처럼 자신의 옷에 불어 오는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 신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처럼 탑을 통해 올라 선 공간은 속세의 번뇌와 근심을 잊게 해주는 공간의 의미를 띤다. 그러나 마지막

22) 參旗: 별자리 이름이다. 『開元占經·卷六十八』에 따르면, “參旗자리는 총 아홉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參星의 서쪽에 있고, ‘天弓’이라고도 불린다(參旗九星, 在參西. 一名天弓).”고 한다.

23) 磨蠓旋: 개미가 맷돌을 따라 돈다는 뜻이고, “蠓”은 “蟻”와 같다. 구체적인 내용은 『晉書·天文志』에서 설명하고 있다: 하늘은 펼쳐진 日傘처럼 둥글고, 땅은 바둑판처럼 네모나다. 하늘은 옆으로 도는데 맷돌을 미는 것처럼 왼쪽으로 움직인다. 해와 달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하늘을 따라 왼쪽으로 돈다. 그러므로 해와 달은 사실 동쪽으로 움직이지만, 하늘이 그들을 끌어 서쪽으로 지게 한다. 비유하자면 개미가 맷돌 위를 기는데, 맷돌은 왼쪽으로 돌고 개미는 오른쪽으로 걷는다. 맷돌은 빠르고 개미는 느리므로, 어쩔 수 없이 맷돌을 따라 왼쪽으로 돌게 되는 것이다(天圓如張蓋, 地方如棋局. 天旁轉如推磨而左行, 日月右行, 隨天左轉, 故日月實東行, 而天牽之以西沒. 譬之於蟻行磨石之上, 磨左旋而蟻右去, 磨疾而蟻遲, 故不得不隨磨以左回焉).

24) 申東城, 「論陸游巴蜀詩及其詩歌嬗變」, 『中華文化論壇』, 7期, 2015, 123쪽.

25) 王之涣, 「登鸛雀樓」: 欲窮千里目, 更上一層樓; 李白, 「夜宿山寺」: 手可摘星辰.

연에서 알 수 있듯이 기호론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 공간은 이상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 이상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지대’이다. 시인은 태평탑에 올라 잠시 계단 위쪽의 선계를 꿈꾸다가 이내 계단 아래쪽 현실로 내려오게 되기 때문이다.

등림지가 갖는 ‘중간지대’란 의미를 「黃鶴樓」 시에서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자.

手把仙人綠玉枝, 신선의 綠玉枝를 손에 쥐고,
 吾行忽及早秋期. 내 여정은 어느새 초가을 시기에 이르렀네.
 蒼龍關角歸何晚, 蒼龍關에 어찌 늦게 돌아가는가,
 黃鶴樓中醉不知. 黃鶴樓에서 인사불성으로 취했기 때문이라네.
 江漢交流波渺渺, 長江과 漢水가 합류하니 물결은 넓고 아득하며,
 晉唐遺跡草離離. 晉, 唐 시대의 유적에는 잡초가 무성하네.
 平生最喜聽長笛, 평생 장적 소리 듣는 것을 가장 좋아했는데,
 裂石穿雲何處吹. 바위를 쪼개고 구름을 뚫는 피리소리는 어디서 나는 것인가?

황학루에는 신선이 누각 위에서 황학을 타고 신선계로 날아갔다는 전설이 있다. 따라서 이 시의 제1구에서 신선이 사용하는 ‘綠玉枝’라는 지팡이를 쥐었다는 표현은 곧 신선세계에 대한 욕유의 동경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런 기호론적 의미를 감안할 때 황학루 역시 태평탑과 마찬가지로 속세와 신선계, 즉 현실과 이상 사이의 중간지대라 할 수 있다. 한편에서 욕유는 황학루에서 취하여 경성으로 늦게 돌아갔다고 했다. 당시 욕유는 蜀 땅에 간 지 9년 만에 귀경하던 길이었다. 그래서 이 시에서 황학루를 빌려 근심으로 가득 찬 현실과 신선들이 유유자적하는 신선계를 지향하는 이상 사이에서 덧없이 보낸 세월에 대한 한탄이 담겨 있다. 역사의 ‘증인’인 長江과 漢水는 변함없이 흐르는데, 황학루는 썩과 唐을 거쳐 벌써 과거의 유적이 되고 말았다. 송나라의 基業 또한 황학루처럼 낡은 유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국의 정서가 묻어난다. 미련에서는 경천동지할 정도로 웅장한 피리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는 사방을 분주하며 여진족과의 전쟁을 호소하였지만 조정에 의해 목살된 옥유의 처지를 비유한 것이다.

황학루에서 신선계(이상)와 인간세상(현실) 사이의 중간지대라는 기호론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은 지리공간의 관점에서든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황학루가 자리잡은 鄂州는 옥유가 9년간 생활한 촉 지방과 임금이 있는 경성 사이에 있는 중간지대다. 촉 지역에서 중원으로 가는 여정은 장강과 한수로 연결되어 있고, 그 합류점이 바로 황학루가 있는 악주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황학루는 장강과 한수 사이의 중간지대다. 옥유가 황학루에서 이전 시대인 진과 당을 생각하였으므로, 황학루는 과거와 현재(남송)를 잇는 중간지대다. 마지막으로 현실과 장강, 한수 등은 보이는 것에 해당하고, 이상과 과거 등은 보이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황학루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중간지대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시공간적 중간지대란 특성 때문에, 옥유가 직면했던 딜레마 즉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보국의 뜻을 버리고 속세를 떠날지, 아니면 소신을 지키며 계속 분투할지를 둘러싼 고민을 투영하는 매개물로서 악주의 황학루라는 등립지가 매우 적합했을 것이다.

4.2. 방향의 공간

‘등립’이란 행위는 기본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오르는 절차를 요구한다. 또한, 지위와 키의 높낮이에 대한 고대인들의 인식에서도 단서를 얻을 수 있듯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은 개념적 은유의 견지에서 볼 때 각각 ‘좋다’와 ‘나쁘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옥유는 등립함으로써 나쁜 현재의 관직생활과 좋은 은거, 나쁜 객지와 좋은 고향이라는 대비의 구도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등립지를 통해 이 대조되는 개념들 사이를 오가기 때문에 긴장이 생겨나고, 좋은 이상과 나쁜 현실 가운데서 취사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딜레마가 발생한다. 결국 옥유는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등립지를 전전하며 방황하게 된다. 이러한 그의 방황을 반영하는 시

적 이미지가 두 가지 있는데, 바로 ‘半醉’와 ‘狂’이다.

등림지에서 현실을 초월해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옥유가 자주 이용했던 매체는 술이었다. 103수의 등림시 가운데 46수가 술을 언급할 정도로 옥유는 딜레마와 수심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발버둥 쳤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방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半醉’란 시어가 잘 설명해준다. 해당 시어를 사용한 등림시 중 하나인 「夜登山亭」 시를 감상해 보자.

飛觀崢嶸天宇寬, 날아갈 듯한 宮觀 우뚝 솟은 하늘은 넓고,
 幽人半醉憑闌幹, 隱士는 반취하여 난간에 기대네.
 三山渺渺鸞鶴遠, 三山은 그윽하고 난새와 학은 멀리 날아가며,
 七澤茫茫蓑笠寒, 七澤은 아득하고 도롱이와 삿갓은 차갑네.
 清吹拂林橫玉笛, 맑은 바람 숲을 스치고 옥피리 소리 울리며,
 紫雲覆鼎熟金丹, 보랏빛 구름 뚜껑을 덮고 금단을 제련하네.²⁶⁾
 童顏綠鬢無人識, 어린아이와 윤기 나는 검은 머리의 젊은이들 중에 아는
 사람 없고,
 回首塵寰一夢殘, 티끌세상으로 머리 돌리니 마치 어렵קות한 꿈을 꾸 것
 같네.

이 시에서 옥유가 등림한 곳은 ‘三山別業’ 주변 西山 북쪽 기슭에 띠폴로 손수 지은 정자이다. 비록 초라할법한 정자이지만, 상서롭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띤다. 신선을 연상시키는 ‘鸞鶴’, ‘紫雲’, ‘金丹’ 등의 시어는 옥유가 이 정자를 도교 사원처럼 생각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등림지를 방문함으로써 옥유는 짧은 시간 동안 신선생활 같은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함련의 ‘遠’

26) 紫雲覆鼎熟金丹: 紫雲은 보랏빛 구름으로, 고대인들은 길조로 여겼다. “覆鼎熟金丹”의 전고는 『抱朴子·內篇·金丹』에 나오는 금단을 제련하는 방법이다: 아홉 번 제련한 단약을 가져다가 약 술에 넣어, 夏至 이후에 술을 뜨겁게 끓고, 朱砂 한 근을 뚜껑 아래에다 넣는다. 경과를 지켜보다가,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린 뒤 햇볕이 그것을 비추게 해라. 짧은 시간 뒤에 갑자기 모두 일어나, 휘황찬란하게 신비롭고 다채로운 빛을 발산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還丹”이 완성된다. 한 숟가락 떠서 복용하면 곧 아침에 승천하게 된다(若取九轉之丹, 內神鼎中, 夏至之後, 爆之鼎熱, 內朱兒一斤於蓋下. 伏伺之, 候日精照之. 須臾翕然俱起, 煌煌輝輝, 神光五色, 卽化爲還丹. 取而服之一刀圭, 卽白日昇天)

과 ‘寒’이 이상은 멀고 현실은 춥다는 것을 상징하듯이, 육유는 미련에서 서술한 것처럼 꿈같았던 체험을 마치고 현실인 티끌세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현세와 신선계, 즉 ‘塵寰’와 ‘天宇’의 중간지대인 정자에서 육유는 그의 이상인 초현실적 경험을 얻기 위해 술의 자극을 빌렸다. 하지만 육유는 이상에 이르는 완벽한 경지인 完醉에 도달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반쯤 취해 있는 半醉의 상태에 머물렀다. 이는 그가 국가 안위에 대한 걱정과 임금을 향한 충심, 그리고 가족의 생계 등 속세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여, 술을 마시기 전에 이미 속세로 돌아간다는 결말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육유는 현실에서 벗어나길 원하지만, 현실로 돌아가겠다는 결의 역시 견지하고 있어서 상충된 의사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술이 껌(현실)을 전제로 음주하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취하지 못하는 것이고, 멀쩡함(현실)과 완취(이상)의 중간 상태인 반취는 육유의 방향을 잘 대변해준다.

‘반취’와 마찬가지로 육유의 방향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시어는 ‘狂’이다. ‘狂’의 사전적 의미로는 ‘정신이 나간 사람’, ‘어리석은 사람’, ‘체체나 가치관에 구애받지 않고 통념을 거부하는 사람’ 등이 있다. 육유의 경우 ‘狂’이란 개념은 이러한 의미들의 교집합인 동시에, 자신의 포부와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어디에도 귀속되지 못하여 느끼는 고독감을 부각시킬 때 사용된다. 이는 진보적 사상을 품거나 천재성을 보였던 역사적 인물의 상당수가 생존 당시에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그 결과 육유는 홀로 소외되고 걸들며 자신을 받아주는 곳을 찾기 위해 방향을 거듭했고, 등림지는 그에게 잠시나마 ‘狂’을 발산하는 공간이었다. 「大風登城」이라는 시를 예로 들겠다.

風從北來不可當,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와 막을 수 없고,
街中橫吹人馬僵. 길가에서 거세게 불어 사람과 말들이 굳었네.
西家女兒午未妝, 서쪽 덕 따님은 오후까지 아직 화장을 하지 않고,
帳底爐紅愁下床. 휘장 밑 난로 붉으니 수심에 침상에서 내려오네.
東家喚客宴畫堂, 동쪽 덕은 손님 불러 화려한 방에서 연회를 열고,

兩行玉指調絲簧. 옥 같은 손가락 두 줄은 악기를 연주하네.
 錦繡四合如坦牆. 아름다운 비단은 사방을 둘러싸 마치 넓은 담장과도 같고,
 微風不動金猊香. 산들바람은 狻猊 향로의 향을 움직이지 않네.
 我獨登城望大荒. 나 홀로 성에 올라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고,
 勇欲爲國平河湟. 용감히 조국을 위해 河湟을 평정하고 싶네.
 才疏志大不自量, 재능이 모자라나 뜻이 커 주제를 모르니,
 西家東家笑我狂. 서쪽 댁과 동쪽 댁이 내가 미쳤다고 비웃네.

이 시에는 송대 문인 특유의 우환의식이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 첫째 연에서 묘사한 것처럼 북쪽에서 온 거센 바람이 길가의 사람과 말들을 얼어붙게 하듯이 북쪽의 여진족이 언제라도 남침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에 올라 바라본 성도 사람들의 모습은 평온하기 이를 데 없다. 시인은 ‘성 위’, ‘길가’, 그리고 ‘방안’이라는 세 공간을 대비시키며 이 공간들에 기호론적 의미를 담았다. ‘방안’은 외부와 단절된 듯 평화롭고 화려한 반면, ‘길가’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 지나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길가’의 사람들은 ‘성 위’의 시인처럼 그 바람이 불어오는 북쪽의 의미를 새겨보지 못한다. 바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과 바람은 바람일 뿐이라는 사람들 틈에서 욕유는 성에 올라 ‘河湟 평정’을 외치는 ‘미친 사람’이 되고 만다.²⁷⁾

27) 이 시 외에도 욕유는 「登擬峴」에서 “有地聊容拙, 無方可療狂(우둔함을 잠시 용납하는 곳은 있어도, 미침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없네).”라고 자백하였다. 천하의 어느 곳을 가더라도 자신의 광적 상태를 치유할 수 없다는 말은, 그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해해 주는 사람 없이 광인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구절에는 ‘狂’뿐만 아니라 ‘拙’ 역시 등장한다. 이 글자는 “졸렬하거나 우둔하다”의 뜻으로 老子가 “뛰어난 솜씨를 지닌 사람은 오히려 졸렬해 보인다(大巧若拙)”라고 말했듯이, 모난 돌이 정 맞는 사회에서는 문인들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위 시구에 의하면, ‘拙人’은 광인과 다르게 받아주는 곳이 있다. 그러므로 욕유는 擬峴臺라는 중간지대에서 현실적인 처세술인 ‘졸’과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광’ 사이에서 저울질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욕유가 ‘광’을 관철하겠다는 생각이 아주 확고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역시 그의 방향을 나타낸다.

4.3 양가감정의 공간

육유는 ‘중간시대’와 ‘방황’의 기호론적 의미를 띤 공간인 등림지에서 갈등과 모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대립적이고 이원적인 개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지향점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상호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상태를 ‘양가감정(ambivalence)’이라 하는데, 육유의 등림시에 나타나는 공간은 이러한 ‘양가감정’의 기호론적 의미를 생산하는 경우를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예로 「南定樓遇急雨」를 보자.

行遍梁州到益州, 梁州를 주유하여 益州에 이르고,
 今年又作度瀘遊. 올해는 또 瀘水를 건너 유람하네.
 江山重復爭供眼, 휘감겨 흐르는 강과 겹겹이 이어진 산은 앞 다투어 눈
 을 즐겁게 하고,
 風雨縱橫亂入樓. 가로세로 휘날리는 비바람은 어지럽게 누각에 들어오네.
 人語朱離逢峒獠, 峒에 거주하는 獠族을 만났으나 이민족의 언어는 이해
 하기 어렵고,
 棹歌欵乃下吳舟. 吳 땅에 가는 배는 어기여차 노 젓고 노래 부르네.
 天涯住穩歸心懶, 천하의 끝이라도 오래 지내면 귀향의 마음이 사그라지
 지만,
 登覽茫然卻欲愁. 누각에 올라 바라보니 망연하여 오히려 수심이 생기네.

이 시는 육유가 瀘州에서 南定樓²⁸⁾에 등반한 뒤 지은 시다. 수련에는 梁州, 益州, 瀘州 세 개의 지명이 보이는데, 이들은 ‘南定’樓라는 약호(code)를 복호화(decoding)하는 부호체계이다. ‘南定’은 諸葛亮의 「前出師表」에서 “남방은

28) 南定樓: 王象之의 『輿地紀勝』에 따르면, “南定樓는 瀘州의 관청에 있다. 晁公武가 諸葛亮의 「出師表」에 등장하는 말을 따와서 이름을 지었다(南定樓在州治, 晁公武取諸葛「出師表」中語爲名)”고 한다. 范成大는 『吳船錄』에서 “瀘州에 정박하여 南定樓에 올랐다. 南定樓는 이 군의 명승지로, 字가 ‘子止’인 전대 장관 晁公武가 지었다. 아래로는 內江과 접하고 있다(泊瀘州, 登南定樓, 爲一郡佳處, 前帥晁公武子止所作, 下臨內江)”고 설명했다.

이미 평정했으니, ……북쪽으로 중원을 평정하리(南方已定, ……北定中原)”란 말을 인용한 것이다. 촉한의 근거지인 익주를 기준으로 볼 때 瀘州는 ‘남정’의 상징이고 梁州(제갈양의 북벌 전초기지)는 ‘북정’의 상징이다. 그런데 육유는 북쪽에서 계속 남쪽으로만 내려왔던 것이다. 자신의 꿈에서 계속 멀어지던 육유는 함런에서 아름다운 강산과 어지럽게 몰아치는 비바람을 대조시켜 美景에 빠져서 북정을 잊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했다. 경련에서는 남정루가 위치한 瀘州의 지리적 특징을 묘사했는데, 알아듣기 힘든 방언을 쓰는 소수민족이 사는 땅이라 속히 배에 올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꿈이 누차 무산되어 느낀 좌절, 그리고 객지살이가 낳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 해소하기 위해 육유는 남정루에 올랐으나, 오히려 근심과 슬픔이 더욱 증폭되었다. 그러므로 남정루는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공간인 동시에 현실을 더 냉철하게 인식하는 공간이라는 이중성을 띤다. 이상을 향해 올랐으나 도리어 현실로 되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모순과 갈등이 생기는데, 이는 미련에서 잘 드러난다. 비록 瀘州는 북방이나 고향과 동떨어진 지리적 공간이지만 지내다 보면 살만한 날이 올 수 있다. 다만 그러려면 결코 누각에 올라서는 안 된다. 하지만 육유는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매번 그 금기를 어기므로 근심이 밀려오는 後果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현실을 잊고자 하면서 도리어 등립하여 현실을 되새김질 하는 것, 그리고 현지에 적응하려 하면서 도리어 이를 저해하는 등립을 택하는 것 모두 육유의 양가감정의 발현이다.

두 번째 예는 「登山亭」이라는 시다.

新得天台古澗藤, 天台山 오래된 계곡의 등나무를 새로 얻어,
 强扶衰疾蹋峻嶒. 역지로 노쇠하고 병든 몸 부축하여 우뚝한 고산을 밟네.
 登高臨遠雖多感,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는 행위는 많은 감정을 일으키지만,
 歎老嗟卑卻未曾. 노쇠를 슬퍼하고 비천을 한탄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네.
 紙上是非難盡信, 종이 위의 시비를 다 믿기는 어렵고,
 人間禍福有相乘. 인간 세상의 화복은 서로 이어지네.
 未知等是枯魚肆, 똑같이 건어물 가게 신세라는 것은 진작 알고 있었으니,

乞水何須望斗升. 물을 구걸하며 어찌 말 되를 바라겠는가?²⁹⁾

앞 시에서도 논의했듯이 욕유는 등림지가 수심을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라는 점을 누차 절감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등림을 택하는 그의 심리는 수련의 '억지로'란 의미를 지닌 '強'이란 시어가 잘 보여준다.³⁰⁾ 등림을 거부하는 감정과 등림을 지향하는 감정이 공존하는 가운데 욕유는 쇠약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 산정에 올랐다. 100수를 넘는 욕유의 등림시 가운데 40수 이상이 지팡이, 석양, 흰머리, 수척하고 병약한 신체 등의 이미지와, '老(늙다)'와 같은 직설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소위 '歎老(노쇠함을 슬퍼하다)'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미관말직에 불평하고 복방이나 조정으로의 복귀를 바라는 것 역시 욕유의 등림시에서 자주 보이는 주제이다. 하지만 이 시의 함련에서 욕유는 등림하면서 단 한 번도 '歎老嗟卑'의 감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29) 『莊子·外物』에 나오는 붕어 이야기가 전고다: 장자는 집이 가난해서 監河侯에게 가서 곡식을 빌리려고 했다. 監河侯가 말했다, “좋소. 내가 곧 읍의 세금을 받을 테니 그대에게 300금을 빌려주겠소, 어떻소?” 장자는 화가 나 안색이 바뀌며 말했다, “제가 어찌 올 때, 도중에 저를 부르는 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려 수레바퀴 자국이 있는 곳을 보니, 붕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붕어야 여기서 뭐하니?’ 붕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동해 수족의 관리입니다. 당신은 혹시 나를 살려줄 말 되의 물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좋소. 내가 장차 남쪽으로 가서 오나라 왕과 월나라 왕을 유세할 예정인데, 서강의 물을 일으켜 그대를 맞이하겠습니다. 어떻소?’ 붕어는 화가 나 안색이 변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늘 살던 터전을 잃어버려 안주할 곳이 없지만 말 되의 물만 얻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한 말을 하다니, 차라리 건어물 가게에서 저를 찾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莊周家貧, 故往貸粟於監河侯. 監河侯曰: “諾. 我將得邑金, 將貸子三百金, 可乎?” 莊周忿然作色曰: “周昨來, 有中道而呼者. 周顧視車轍中, 有鮒魚焉. 周問之曰: ‘鮒魚來, 子何爲者邪?’ 對曰: ‘我, 東海之波臣也. 君豈有斗升之水而活我哉?’ 周曰: ‘諾. 我且南遊吳·越之王, 激西江之水而迎子, 可乎?’ 鮒魚忿然作色曰: ‘吾失我常與, 我無所處. 吾得斗升之水然活耳, 君乃言此, 曾不如早索我於枯魚之肆!’”)

30) 모순적인 양가감정은 욕유의 등림시를 정의하는 핵심개념 중 하나이기 때문에, '強'이란 시어는 그의 등림시에 자주 등장한다. 그 예로 「登慧照寺小閣」의 “마음이 답답하면 매번 멀리 시야를 펼치고 싶어지니, 비록 나의 고향이 아니지만 억지로 누각에 오르네(局促每思舒望眼, 雖非吾土強登樓).”라는 시구와, 「登荔枝樓」의 “주인이라고 불리지만 원래는 손님이니, 나의 고향이 아니란 것을 알고 억지로 누각에 오르네(喚作主人元是客, 知非吾土強登樓).”라는 구절을 들 수 있다.

육유 본인이 지은 수많은 등림시에 의해 의문이 제기되고, 등림지 자체가 갖는 기호론적 의미를 보더라도 진실성이 의심된다. 등림지에 오르는 행위는 상당한 체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육유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신체조건과 나이를 상기하게 된다. 게다가 등림은 하늘에 접근하고 자신의 공간적 위치를 낮은 곳(卑)에서 높은 곳(高)으로 끌어올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천한 자신의 신분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육유가 ‘歎老嗟卑’를 부정하고 초연한 척 하더라도, 등림지 고유의 기호론적 의미를 살펴보면 육유가 그 감정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았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심리는 양가 감정을 지닌, 자아모순적이고 이중적인 면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육유는 높은 산정에 오름으로써 감정이 高揚되어 경련에서 언급한 ‘불확정성의 원리’와 ‘새옹지마’의 교훈을 되새길 수 있었다. 이로써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是와 非, 信과 不信, 禍와 福 같은 대립적이고 이원적인 개념들을 떨쳐낸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도 각지의 등림지를 전전하며 시를 지은 것으로 보아 초탈함과 상치되는 부정적인 정서가 여전히 존재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 예는 육유가 고향 山陰에 돌아와 지은 「倚樓」다.

曲曲關幹縹緲間, 구불구불한 난간 아득한 산 가운데 있고,
哦詩本欲破除閑. 시를 읊음은 본래 한가로움을 떨쳐내기 위함이라네.
無端又起天涯感, 이유 없이 또 천하의 끝에 있는 느낌이 들어,
淡墨生綃數點山. 옅은 먹으로 생초 위에 산 몇 점을 그리네.

귀향을 학수고대하던 육유가 고향의 누각에 올라 느낀 감정은 아쉽게도 귀속감과 친근감만이 아니었다. 양가감정은 이 등림지에서도 일어났는데, 육유는 타지도 아닌 고향에서 소외감과 낯설음을 느꼈다. 제3구에서 육유는 자신이 천하의 끝에 홀로 버려진 느낌이 들었다고 표현했다. 그 이유는 육유의 긴 객지생활을 동반하면서 등림지는 그에게 ‘天涯感(천하의 끝에 있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호론적 의미는 육유가 고향에 돌아와서도 무의식 속에 여전히 침잠해 있었는데, 내재적이고 잠재

적인 세계를 드러내는 기능을 지닌 시라는 문체를 통해, 고향의 등림지가 ‘天涯感’이란 무의식을 의식 밖으로 끄집어 낸 것이다. 이는 옥유의 타향살이와 그곳에서의 등림 경험에 따라 발전했던 등림지란 공간의 기호론적 의미가 고향에서도 객거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완전히 내면화된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는 그만큼 옥유의 나그네 생활에 있어서 등림이 큰 비중을 차지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5. 결론

본고는 옥유의 등림사에서 묘사한 건축물이 위치한 지리공간의 의미와 그 건축물이 지닌 기호론적 의미를 검토하였다. 등림지가 위치한 지리환경 속에서 옥유가 본 다양한 경물들은 그 상징적 의미로 인해 옥유의 회재불우, 우환 의식, 은거 의지, 思鄉, 국토수복 소망 등 다양한 정서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정서는 벼슬길에서의 실패, 연이은 좌천과 유랑, 그리고 北定 숙원의 무산 등 옥유의 개선되지 않는 처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옥유가 등림한 지리공간은 객지와 고향을 불문하고 모두 옥유에게 암울하고 낙이 없는 비우호적 공간으로 다가왔다. 이 때문에 등림을 할 때마다 주거 공간에 대한 적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타지에서의 부득의한 삶이 길어지면서, 옥유는 벼슬의 진퇴, 귀향과 객거, 閒職과 要職 등 이원적인 대립 개념들 사이에서 고민하고 방황하게 되었는데, 이는 등림지의 중간지대적인 특성과 공명을 일으켰다. 그 때문에 등림지는 자신이 직면한 딜레마와 그것이 초래한 수심을 잠시 잊기 위해 등림한 옥유에게 오히려 그것을 상기시키고 심화시키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하지만 잔혹한 현실에 지친 나머지, 현실에서 떨어져 이상을 체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짧은 안식과 위안을 포기하지 못했던 옥유는 登樓를 반복하며 방황했다. 이처럼 등림의 ‘폐해’를 알면서도 그에 의지하였고, 어느 한쪽을 결단하

지 못하여 현실과 이상을 오가며 발버둥친 육유는 양가감정을 발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요컨대, 등림지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육유에게 있어서 지식인이 공감할만한 근심과 그의 독자적인 갈등 및 모순된 감정을 기탁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이다. 그리고 육유는 유량을 시작한 시점부터 고향으로 돌아간 뒤까지도 등림의 습관을 버리지 않았으니, 등림지는 그의 방황 및 방랑의 일생을 대변하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중간지대와 방황, 그리고 양가감정이 육유의 등림지에서 핵심 개념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그 시에서 보이는 지리공간적 의미와 기호론적 의미를 해독하였다. 이러한 핵심 개념과 연구방법이 여타 시인의 등림시나 육유의 기타 작품에 대한 진일보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 김준연, 「杜甫 秦州·同谷 時期 詩에 나타난 공간의 이중성」, 『중국어문학지』, 51권, 2015.
- 이기훈, 「陸游 만년 變節에 관한 小考」, 『인문사회과학연구』, 27집, 2019.
- 주기평, 『육유시가연구』, 서울: 역락, 2010.
- 최은정, 「唐代 李白·杜甫 登望詩 比較 研究」,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2020.
- 程光裕, 『中國歷史地圖』,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0.
- 姜曉紅, 「文人登高的美感分析」, 『海南師範大學學報』, 20卷 6期, 2007.
- 裴登峰, 「古典詩詞中的登高主題及其創作緣由」, 『西北民族學院學報』, 4期, 1996.
- 錢仲聯, 『陸游全集校注』,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2011.
- 瞿明剛, 「試論中國文學的登高主題」, 『江海學刊』, 2期, 1994.
- 申東城, 「論陸游巴蜀詩及其詩歌嬗變」, 『中華文化論壇』, 7期, 2015.
- 趙松元, 「王粲登樓”與登樓懷鄉的傳統」, 『中國韻文學刊』, 1期, 1996.

Abstract

Spatial Semiotic Analysis on Lu You's Climbing Poems

Kim, Dong Jin · Kim, Joon Youn

This paper focuses its analysis on the Song Dynasty poet Lu You's climbing poems. To start with, it studies the geographic meanings of the space where buildings that Lu You climbed were located in by analyzing the images Lu You depicts in his climbing poems. Then it also examines how these meanings effectively deliver the main messages of Lu You's climbing poems, such as longing for hermitage, aspiration for redeeming lost territory, and awareness of misfortunes. On top of that, this paper also interprets the semiotic meanings of the structure itself as space. In order to do that, it introduces the key concepts: middle zone, wandering, and ambivalence. These concepts show how Lu You, who struggles all his life and develops contradictory feelings due to dualistic notions and dilemmas he confronts, applies the innate nature of the structure as a middle zone to vividly express his own thoughts and feelings.

Key words : semiotic, space, Lu You, wander, ambivalence, geographic, middle zone, climb

투 고 일 : 2021. 7. 10. / 심 사 일 : 2021. 7. 15.~ 2021. 8. 15. / 게재확정일 : 2021. 8. 20.

